

강력한 한방에도 기회 살리지 못했다

OPS·홈런 지표는 상위…득점권 타격 리그 최하위 맴돌아
시즌 내내 이어진 부상 악재…신·구 조화 앞세워 반등해야

TIGERS 2025시즌 결산-중

올 시즌 KIA타이거즈가 추락한데에는 타선 부진 영향도 컸다. 한방은 있었으나 찬스를 잡지 못한 게 발목을 잡았다.

KIA타이거즈의 OPS(출루율+장타율)는 0.734(4위)로 중상위권에 속했다. ‘야구의 꽃’ 홈런은 144개로 삼성(161개)에 이어 가장 많았다.

그러나 팀득점은 668점으로 6위에 그쳤다. 장타를 때려내더라도 기회를 이어나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득점권에서는 유독 약한 모습이었다. 득점권 타율(0.250)과 OPS(0.709)에서 각각 10위, 9위에 머물렀다. 점수를 뽑아내려고 할 때면 신기할 정도로 성적이 푹 떨어졌다.

사실 KIA 타선은 시즌 초반부터 흐름이 좋지 않았다. 수많은 선수가 부상으로 줄이탈했기 때문이다. 실제 부상 명단을 살펴보면 지긋지긋할 정도다.

시작은 지난 시즌 MVP 김도영이었다. 그는 3월 22일 열린 NC다이노스와의 KBO리그 개막전에서 왼쪽 햄스트링을 다쳤다. 이후 4월 25일 복귀했으나 5월 27일 키움히어로즈전에서 도루를 하다 오른쪽 햄스트링을 다치면서 다시 전열에서 이탈했다.

또 박찬호는 3월 25일 오른쪽 무릎 염좌로 이탈했다가 복귀했다.

김선빈은 3월 28일 왼쪽 종아리 안쪽 근육을 다친 뒤 4월 5일 엔트리 말소됐다. 4월 19일 복귀전을 치른 그는 당일 상태 팀과 충돌해 입안이 찢어지는 부상으로 봉합 수술을 받기도 했다. 이어 5월 21일 kt전에서 왼쪽 종아리 바깥쪽 근육을 다치는 등 전반기에만 3차례 부상을 당하며 자리를 비웠다.

주장 나성범 역시 4월 26일 LG전에서 오른쪽 종아리 부상으로 26경기만 출장한 채 전반기를 마감했다.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 또한 5월 13일 허리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가 6월 1일에 복귀했다.

여기에 외야 반지리를 메워주던 박정우가 5월 25일 왼쪽 햄스트링을, 내야수 윤도현이 6

월 11일 오른쪽 검지 중간 마디뼈가 부러져 수술대에 올랐다.

부상 악령에게 점령당한 KIA는 5월까지 하라의 길을 걸었으나 6월부터 짝짝 반등에 성공했다. 그 결과 전반기 팀 타율 4위(0.261), 홈런 2위(80개), OPS(출루율+장타율) 0.745로 3위에 올랐다.

이 성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함평 타이거즈’의 반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KIA는 전반기에 ‘잇몸 야구’를 넘어 ‘임플란트 야구’를 선보였다.

그 선두주자는 김호령이다. 사실 김호령은 그동안 수비에서만 맹활약을 선보였다. 남다른 그의 중견수 수비 범위는 ‘호령존’이라는 별명까지 생길 정도였다. 이에 중견수 수비에서는 박혜민(LG트윈스)과 더불어 리그 최정상급으로 평가받았다. 그럼에도 타격이 따라와 주지 않아 주전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올 시즌은 달랐다. 6월 한 달간 타율 0.271을 기록했다. 이 기간 2루타만 8개를 때려냈고, 그가 2루타를 치는 경기에서 패배는 없었다. 이어 7월에는 KBO리그 데뷔 이후 첫 멀티포와 만루포를 쏴아 올리며 만개했다. 그는 전반기 성적은 49경기 148타수 42안타 2홈런 24타점 타율 0.284 OPS(출루율+장타율) 0.795.

오선우 또한 주전 공병을 잘 메웠다. 그는 전반기 69경기 244타

수 75안타 8홈런 34타점 타율 0.307 OPS 0.840으로 물오른 타격감을 선보였다. 타격은 물론 수비에서도 좋은 활약을 선보이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다.

2군에서 시즌을 시작 고종욱 또한 6월 풀업 이후 전반기 23경기 58타수 19안타 2홈런 10타점 타율 0.328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특히 득점권에서 남다른 집중력을 보여준 그는 결승타 3개를 때려내기도 했다. 이외에 김석환, 김규성, 박민 등 다양한 자원들이 활약하며 점체했던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후반기 시작과 함께 타격 밸런스는 급격히 흔들렸다. 부상병이었던 김선빈과 나성범이 합류했으나 오히려 성적이 떨어졌다. 심지어 두 번째 부상 이후 복귀했던 김도영은 8월 8일 또다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됐다.

결국 9월에는 팀 타율(0.225), OPS(0.661) 모두 리그 최하위로 추락했다.

특히 올 시즌 규정 타석을 채운 타자 중 3할 타자는 최형우(타율 0.307) 단 1명뿐이었다. 이어 박찬호(0.287), 오선우(0.265) 정도만이 3할에 가까운 타율로 팀 타선을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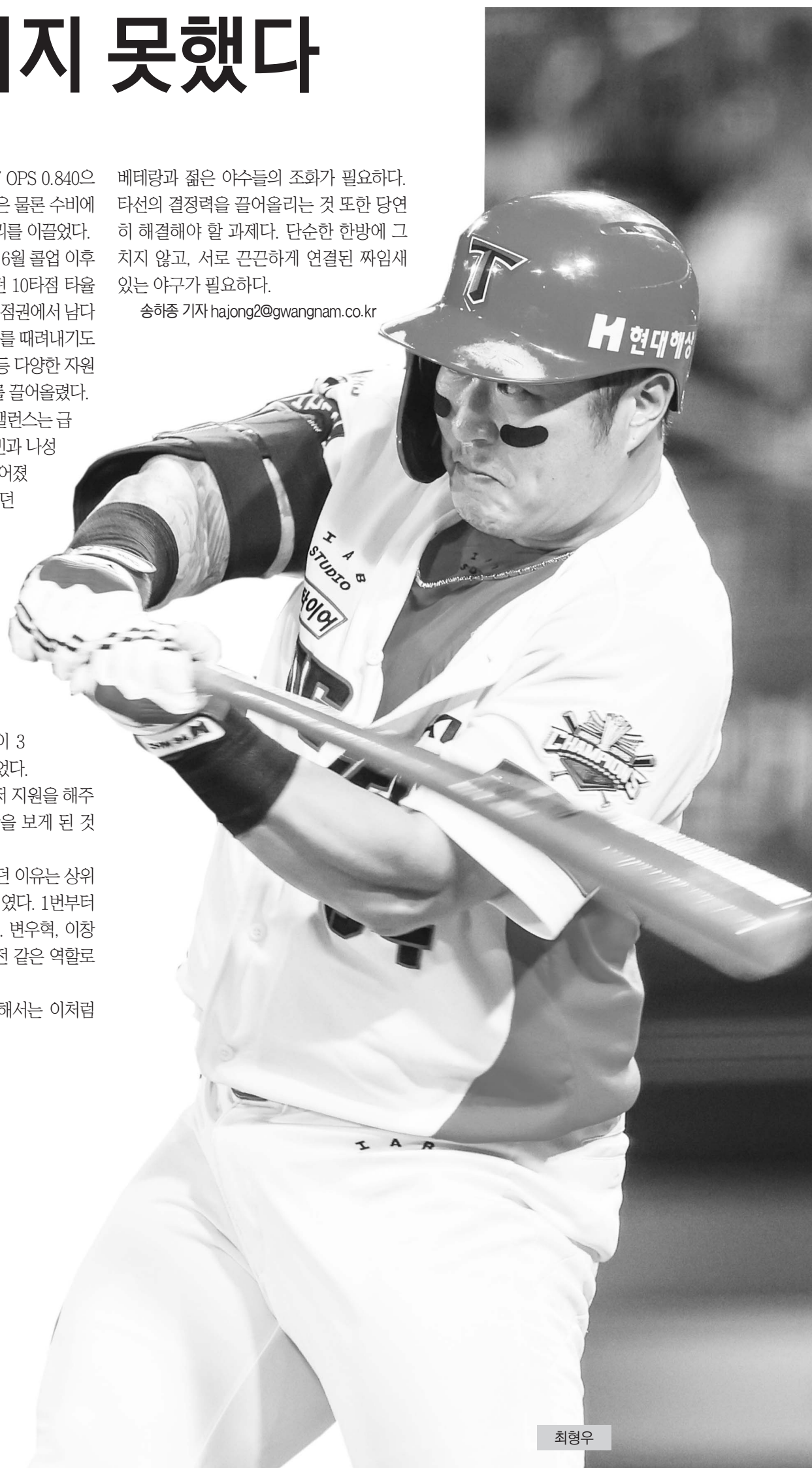
마운드가 흔들린 가운데 타선마저 지원을 해주지 못하면서 가을야구 탈락의 쓴맛을 보게 된 것이다.

KIA가 지난 시즌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위 타선뿐만 아니라 하위타선도 강해서였다. 1번부터 9번까지 거를 틈이 없는 모습이었다. 변우혁, 이창진, 박정우 등 백업 자원들 역시 주전 같은 역할로 팀 우승에 힘을 보탰다.

내년 시즌 KIA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베테랑과 젊은 선수들의 조화가 필요하다. 타선의 결정력을 끌어올리는 것 또한 당연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단순한 한방에 그치지 않고, 서로 끈끈하게 연결된 짜임새 있는 야구가 필요하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최형우



김호령



오선우

‘배구 여제’ 김연경 등번호 10번 영구 결번

2025~2026시즌 프로배구 정규리그 개막 후 은퇴식 개최

한국 배구의 ‘살아있는 전설’로 통했던 김연경(37)의 등번호 10번이 영구 결번으로 지정된다. 흥국생명에는 오는 18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정관장과 2025~2026시즌 프로배구 정규리그 개막 경기를 치르고 나서 김연경의 은퇴식을 연다. 이때 김연경의 영구 결번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흥국생명은 지난 시즌 후 은퇴를 선언한 김연경의 은퇴식과 영구 결번식 날짜를 새 시즌 홈 개막전으로 잡고 준비해왔다.

김연경의 등번호 10번은 영구 결번으로 남는다. 한국 여자 배구의 큰 족적을 남긴 김연경에 대한 예우다.

김연경은 흥국생명의 간판이자 한국 여자배구의 레전드였다. 그는 2005~2006시즌 V리그에 데뷔한 이후 국내 무대에선 총 여덟 시즌을 뛰었다.

데뷔 첫째 소속팀 흥국생명을 통합우승으로 이끌고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와 챔피언결정전 MVP, 신인상, 득점상, 공격상, 서비스상을 모두 휩쓸며 한국 배구 역사를 새로 썼다.

그는 국내에서 뛰 네 시즌 동안 흥국생명의 정규리그 우승 3회, 챔피언결정전 우승 3회, 통합우승 2연패를 견인했다.

2008~2009시즌 종료 후 해외 무대 생활을 거친 김연경은 2020~2021시즌부터 2024~2025시즌까지 다시 네 시즌을 V리그에서 뛰었다.

은퇴 시즌이었던 2024~2025시즌에는 흥국생명의 통합우승을 이끈 뒤 챔피언결정전 MVP에



서 241경기밖에 뛰지 않았지만, 최소 경기 5천 득점을 작성하는 등 통산 득점 부문 6위(5314점)에 올라 있고, 통산 공격 성공률 45.15%를 기록했다.

김연경은 공격 못지않게 수비에서도 안정감 있는 리시브 능력을 보이며 코트 안에서 흥국생명의 중심 역할을 했다.

또 여자 국가대표팀의 주축으로도 활약하며 2012 런던 올림픽에 이어 2020 도쿄 올림픽에서도 한국의 4강 진출에 앞장섰다. 한국 배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만큼 영구 결번으로 역사에 세겨질 만하다.

김연경은 시몬, 김사나, 문성민에 이어 V리그에서 네 번째 영구 결번의 영예를 안게 됐다.

연합뉴스

땅끝 해남서 LPGA ‘BMW 챔피언십’ 열린다

내일부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

김효주·이소미·유해란 등 경쟁

전남 해남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선수들이 샷 대결을 펼친다.

LPGA 투어 가을 ‘아시안 스윙’ 두 번째 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230만달러)이 16일부터 19일까지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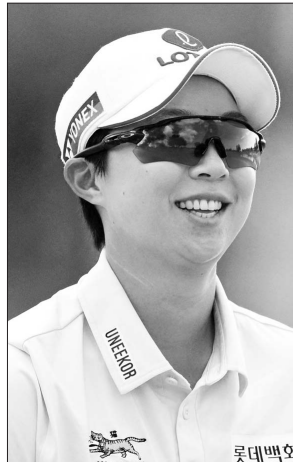
총 78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이번 대회는 컷 탈락 없이 모든 선수가 우승 경쟁을 펼친다. 우승 상금은 34만5000달러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정상에 올랐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호주의 해나 그린리 와이어 투와 이어 우승을 달성,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린은 올해 대회에도 출전해 2연패를 노린다. 다만 최근 출전한 7개 대회 중 5개 대회에서 컷 탈락하는 등 흐름이 좋지 않다. 최근 약 한 달 동안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한 그는 이번 대회를



김효주



이소미



유해란

통해 재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2023년 우승자인 세계랭킹 3위 이민지와 2021년 우승자 고진영 또한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호주 교포 이민지는 지난 12월에 끝난 LPGA 투어 북의 상하이에서 3위에 오르는 등 상승세에 있다.

이외에 세계랭킹 1위 지노 티파쿰(태국)과 2위 벨리 코르다(미국), 4위 리디아 고, 5위 찰리 힐(잉글랜드) 등 최정상급 선수들은 출전하지 않는다.

북의 상하이에서 올 시즌 처음으로 2승 고지에 오른 티파쿰이 출전을 포기하면서 1승씩을 거둔 다른 선수들은 다승 공동 1위에 오를 기회가 생겼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올 시즌 우승 트로피를 든

임진희, 김아림, 김효주, 이소미, 유해란이 안방 무대에서 시즌 2승을 조준한다.

기대주는 김효주다. 세계랭킹 8위 김효주는 지난 5일 끝난 롯데 챔피언십을 포함해 최근 출전한 5개 대회 중 2개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북의 상하이에서 공동 4위에 오른 이소미와 최근 출전한 2개 대회에서 연속 톱10에 이름을 올린 김아림도 다크호스다.

최혜진, 김세영, 이미향, 신지은, 이일희, 박성현, 1988년생 이정은, 1996년생 이정은, 전인지, 윤이나 등 반가운 얼굴들도 국내 팬들을 맞이한다.

출산과 육아로 약 2년 동안 자리를 비웠던 최은정은 이번 대회를 통해 복귀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